

조합원 2,000명 돌파 **특집**

조합원의 투쟁으로 일군 2,000 조합원 시대

2018년 7월 현재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수 2,060명, 2,000명 조합원 시대를 다시 열었다.
2,000명 조합원 시대를 열기 까지 그 과정은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투쟁의 역사였다.

2015년 우리의 투쟁은 언제나 옳았다.

2015년은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투쟁의 역사가 되었다. 서울대병원은 박근혜정부의 사주를 받고 불법적인 성과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도했다. 불법과 폭력을 가리지 않고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마저 해지 통고하며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했다. 결국, 조합원 비조합원 할 것 없이 모두가 분노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야말로 엄청난 가입 열풍이었다. 그 해 우리는 파업투쟁으로 맞서 성과급제를 막아내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냈다. 우리의 투쟁은 언제나 옳았다.



2015년 성과급제 반대와 취업규칙 개악 저지를 위한
서울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장면

2017년 차별을 넘어 우리 모두는 하나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병원은 한명이라도 더 해고하려 했다. 당시 비정규직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고용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있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설마 했던 병원의 태도에 분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의 파업은 승리로 끝났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 가입으로 화답했다.

간호본부 직원들의 억눌려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17년은 병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갑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억눌려 있던 병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병원은 간호사 신규직원에게 월 30만원만 지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체불임금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폭발적으로 이에 동참했고, 그 숫자만 300명이 넘었다.

노동조합 가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간호부 교대근무자의 체불임금 파업투쟁의 결과는 2017년 한해에만 조합 가입 300명이 넘는 성과를 낳았다. 이제 과반노조가 멀지 않았다. 노조 할 권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권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 노조 합시다!



노동조합 가입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성인응급실 간호사 조합원 인터뷰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제 자유 시간을 지불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에 더 많은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응급실 간호사 조합원 이경민입니다. 졸업식 이틀 만에 발령 받은 햇병아리 간호사였었는데,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네요. 지난 2년 동안 하루 버터 하루 산다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일만 했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노동조합에서 많은 도움과 위안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무탈하게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였던 저는 막연히 노동조합의 존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두려움이었겠지요. ‘이제 겨우 일에 적응해서 다닐만하다 싶은데, 괜히 노동조합에 발 담갔다 일상에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살인적인 근무 환경에 환자가 위험한 순간에도, ‘결국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라며 침묵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무 환경을 버틸수록, 다른 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도 군말 없이 묵묵히 버티는 것이 미덕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겨우 사회 초년생인 제가 혼자 바꿀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응급실 선생님들과 함께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일상은 평온합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제 자유 시간을 지불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에 더 많은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응급실 조합원이 많아지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응급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인력요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겠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서울대병원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매병원 92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조합원 인터뷰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작지만 더 큰 목소리를 내줄 무언가가 필요하고,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 최근 내가 한 선택은 노동조합 가입이다. 조합 간부들은 지하식당에서 그리고 병동을 순회하면서 소식지를 주면서 안부를 물어봐주었고, 어려운 점을 잘 들어주었다. 그 덕분인지 92병동 간호조무사 7명은 우리 목소리를 대신 이야기 해 줄 곳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모두가 같은 마음이였다. 그렇게 가입은 이뤄졌다. 모두가 동지가 되었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었다.

간호조무사라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선택한 길이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과 봉사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지 않으며 할 수 없는 일하기에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장기 병

가가 생기면서 우리끼리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만 했다. 우리는 힘들지만 환자를 돌보며 보람 있었고, 채용 처음부터 정직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병원에 외쳤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작지만 더 큰 목소리를 내줄 무언가가 필요하고,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혼자서 하기 힘든 일들을 함께 개선하고, 서로 지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질 환경을 위해 함께 하겠다. 든든한 조직이 있어 오늘도 웃는 얼굴로 환자들을 마주한다.

2018년 7월 25일 조합원 이상미

이제, 당신의 손을 얹어주세요!

드디어 2000명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용기를 내주셨어요.

가입 못할 이유를 찾으면 많지요?

그런데 가입할 이유는 더 많아요~

민주시민의 시작은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당신을 더 행복하게 바꿉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2000명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얹어주세요



노조가입! 이젠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웹 주소 : bit.ly/서울대병원노조가입

1.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네모버튼을 누르고 2. 스캐너를 QR코드에 갖다대면 끝!



대구가톨릭대의료원 3차협상도 결렬..파업 돌입

노조 측 24일 전야제 이어 25일 파업.."갑질 문화, 저임금 더이상 못 견뎌"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7-25 11:40

[메디파나뉴스=서민지 기자] 갑질 문화와 저임금, 희생 강요에 지친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은 25일 병원 경영진과의 협상 결렬에 따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노조는 7개월간의 긴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98.3%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의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 24일 18시 파업전야제를 진행했고, 이날 450여명이 참석했다. 송명희 분회장은

"3차 조정회의를 하고 왔는데,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보다 낫겠다 싶을 정도로 답답했다"며 "의료원장이 교섭에 나왔고 현안 문제를 공유하며 의료원 실태를 알고 있어 잘 해결될 줄 알았으나 직원에 대한 공감 없이 희생만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희생과 봉사로 의료원의 겉모습은 화려하나, 실제로는 암세포처럼 퍼진 갑질 문화와 저임금에 따른 희생강요,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으로 병든 상황"이라며 "지난날들을 보상받고, 의료원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25일 오전 6시 30분을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한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떠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노동 권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일한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하루교육

8월 10, 17일 (금)
인제 내린천 래프팅
(당일지기, 회비 1만원 필요시 교지)

8월 22, 29일 (수)
단체 영화관람

※ 래프팅은 신청자가 20명 미만일 시 다른 프로그램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서대의원, 노동조합(본원 T3440 보라매 T2930)으로 신청하세요

2018년 임단협 단체교섭 상견례에 참관 합시다!

시간 : 7월 31일(화), 15시 제1회의실

서창석 병원장은 2017년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하청노동자의 정규직전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조합원들의 노동 강도는 늘어만 간다.

노동시간 단축법도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 2015년 빼앗긴 우리의 복지를 다시 되찾아 와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단체교섭 참관하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합시다!**